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눅 19:10)

사역 소식: 2024년 11월

구원으로 향하는 미카*의 이야기

[아비브 센터는 다양한 조직에서 모인 여러 자원봉사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타냐의 메시아닉 재활 팀 리더인 이갈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가 미카*를 만난 것은 아비브 센터에서 방문객을 맞을 수 없었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이었습니다. 저희는 대신 거리의 노숙자와 마약 중독자들에게 식사를 준비하고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도소에서 막 출소하고 곧바로 중독 상태로 돌아간 미카*를 우연처럼 만났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는 즉시 "저는 예수 이야기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어떻게 아셨나요?"라고 웃으며 물었습니다.

"감옥에서도 사람들이 텔아비브에서 공짜 음식을 나눠주는 당신의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더군요."라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나누던 중 미카*는 저를 깊은 생각 속에 바라보며 "대단히 익숙한 얼굴이시네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도 수년 동안 중독자로 지내서 기억력이 아주 좋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래 전에 당신이 듣고 싶지 않다는 예수님이 저를 찾아주셔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지금 섬기고 있는 재활 센터에 대해 이야기하며 거리를 떠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시도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며 악수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아마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라고 덧붙였습니다.

나중에 아비브 센터가 다시 문을 열자 미카*는 단골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침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당신을 만났었는지 기억납니다! 거의 20년 전에 같이 감옥에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당신은 범죄자였고 완전히 미친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달라졌네요." 이 덕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열렸지만, 미카*는 계속해서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 역사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고 거의 4년이 지났을 때, 미카*는 아비브 센터에 들어오더니 곧바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재활 센터에 들어와서 제 인생을 바꿀 준비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근무 교대 후 저는 그와 함께 재활 센터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재활 센터에서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하며 죄와 대속,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고, 두 달 후 미카*는 회개하며 주님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매일 더 튼튼히 자라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멘!

빛을 보게 된 미라*의 숨겨진 달란트

여성 쉼터의 여성들에게 여러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 안에 잠자고 있거나 억압되었던 자질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죠.

미라*는 저희와 함께 지낸지 몇 달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았고, 끔찍한 무질서 속에서 살았으며, 문 열 힘조차 거의 없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 굳게 닫힌 셔터 뒤에 영혼을 숨겨둔 것 같았습니다.

미라*는 점차 쉼터의 주방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쉼터 담당자 타치아나가 허리 통증으로 인해 집에서 휴식을 취해야 했습니다. 이를 본 미라*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방에서 플타임으로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미라는 망설임 없이 그 역할을 맡게 되었고, 나아가 '총주방장'라는 명예 칭호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최근 미라*는 재봉틀을 켜고 자원봉사자 로라를 위해 치마를 수선했습니다. 새로 고친 치마를 입은 로라의 사진이 단톡방에 등장하자 미라*는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저는 항상 사람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저를 위해 올바른 곳에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센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을 표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목격할 수 있는 것은 저희 모두에게 큰 특권입니다!

평범한 천사들

최근 아쉬켈론에서 인도적 구호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에두아르드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한 가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5년째 살고 있는 타치아나는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우크라이나에서 노모 타마라를 모셔왔습니다. 타마라는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상태로 휠체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타치아나의 집은 3층인데 아파트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어머니를 내무부에 최초 등록을 신청하는 방법조차 고민 중입니다.

에두아르드와 그의 팀은 타마라를 조심스럽게 계단으로 내려다가 사역 센터로 이송한 후, 무사히 집으로 모셔드릴 계획으로 도착했습니다. 감사에 젖은 타치아나는

"대체 누구신가요? 어떤 천사들이 낯선 사람을 돕기 위해 이렇게 오시나요?"라고 외쳤습니다. 에두아르드는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두 분과 함께 있고자 하는 열망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분이 계십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타치아나에게 성경을 선물로 건넸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 저희와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든지 기도 제목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도브 & 올가 비카스,

Aviv Ministry

P.O.Box 1181 • Arad 8911002 • Israel

• Tel/WhatsApp.: +972-544-997336

자세한 정보와 후원 정보는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알아보세요: www.avivministry.com



dovbikas@gmail.com

더 많은 소식과 기도제목:

1. 아쉬켈론에서는 사람들의 가정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현재의 노력과 함께 물류 센터를 설립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구제 및 복음 전도 활동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올바른 위치와 스태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 계획 중인 아랍 재활 센터의 적절한 위치와 직원을 찾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세요. 길고 복잡한 과정이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3. 새로운 부대표 세르게이는 최근 브엘세바로 이사하여 아비브 미니스트리에서 정규 스태프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희에게 큰 도움과 축복입니다! 세르게이의 가족이 새로운 도시와 새로운 생활 방식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